

국 어

해설위원: 정채영 교수

<총평>

2016년 국가직 9급 시험의 난이도는 중상 정도이다. 문법 3문제, 어문 규정 3문제, 어휘 4문제, 비문학 독해 6문제, 문학 독해 4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이는 영역별 한 문제 정도의 가감이 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예년의 비율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문법 영역은 형태론 문장론 그리고 올바른 어법 3문제가 출제되었는데 각각 보조사의 의미 파악, 안은문장의 기능 파악, 적절한 문장으로 고쳐 쓰기 등이다.

어문규정에서는 적절한 띄어쓰기를 요구하는 문제와 표준어, 외래어 표기법 문제가 출제되었고, 문장부호와 로마자 표기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다.

어휘 영역에서는 한자성어의 적용 문제와 한자어의 표기 문제가 출제되었으며, 순우리말의 의미를 묻는 문제도 1문제 출제되었다.

비문학 영역은 6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사실적 정보의 확인, 글의 추론적 이해 등을 요구하는 문제이다. 특히 화법 영역 중 대화의 원리가 2문제 출제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문학 영역에서 출제된 4문제는 현대시의 이해, 소설의 시점, 고대 수필의 이해 등 표현상의 특징을 파악하는 문제였다.

시험공부를 하는 동안 많은 노력을 하고 엄청난 에너지를 쏟았을 것이다. 이제 좋은 결과를 기다려 보도록 하자. 그리고 다른 시험도 병행하여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지금 해야 할 일은 현재의 결과에 대한 분석과 이를 토대로 앞으로의 공부 방향을 정확히 잡는 일이다. 반성은 하되 후회는 하지 말자. 다시 출발하면 되는 것이다.

문 1. 외래어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flash-플래시
- ② shrimp-쉬림프
- ③ presentation-프레젠테이션
- ④ Newton-뉴턴

정답 ②

‘쉬림프’가 아니라 ‘슈림프’이다. ‘shrimp’는 ‘어말의 [ʃ]는 ‘시’로 적고, 자음 앞의 [ʃ]는 ‘슈’로, 모음 앞의 [ʃ]는 뒤따르는 모음에 따라 ‘샤’, ‘새’, ‘셔’, ‘셰’, ‘쇼’, ‘슈’, ‘시’로 적는다.’는 원칙에 따라서 ‘쉬림프’가 아닌 ‘슈림프’로 표기한다.

문 2. 밑줄 친 보조사의 의미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그렇게 천천히 가다가는 지각하겠다.
-는: 어떤 대상이 다른 것과 대조됨을 나타냄
- ② 웃지만 말고 다른 말을 좀 해 보아라.
-만: 다른 것으로부터 제한하여 어느 것을 한정함을 나타냄
- ③ 단추는 단추대로 모아 두어야 한다.
-대로: 따로따로 구별됨을 나타냄
- ④ 비가 오는데 바람조차 부는구나.
-조차: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을 나타냄

정답 ①

이 문장에서 ‘는’은 어떤 대상이 다른 것과 대조됨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쓰인 것이 아니라 ‘강조’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쓰였다. ‘강조’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의 예로는 ‘놀러 가더라도 멀리는 가지 마라.’가 있다. 한편 어떤 대상이 다른 것과 대조됨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쓰인 경우의 예로는 ‘사과는 먹어도 배는 먹지 마라./산에는 눈 내리고 들에는 비 내린다.’ 등이 있다.

문 3. 다음의 상황에 어울리는 한자 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김만중의 ‘사씨남정기’에서 사씨는 교씨의 모함을 받아 집에서 쫓겨난다. 사악한 교씨는 문객인 동청과 작당하여 남편인 유한림마저 모함한다. 그러나 결국은 교씨의 사악함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유한림이 유배지에서 돌아오자 교씨는 처형되고 사씨는 누명을 벗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

- ① 교언영색(巧言令色)
- ② 절치부심(切齒腐心)
- ③ 만시지탄(晩時之歎)
- ④ 사필귀정(事必歸正)

정답 ④

제시문에서 사악한 교씨는 벌을 받고, 사씨는 누명을 벗는다. 이는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감.’을 의미하는 사필귀정(事必歸正)과 어울리는 상황이다.

- ① 교언영색(巧言令色): 아첨하는 말과 알랑거리는 태도.
- ② 절치부심(切齒腐心): 몹시 분하여 이를 갈며 속을 씹임.
- ③ 만시지탄(晩時之歎): 시기에 늦어 기회를 놓쳤음을 안타까워하는 탄식.

문 4. 다음 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 연구원이 어떤 실험을 계획하고 참가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둘씩조를 지어 함께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파트너는 다른 작업장에서 여러분과 똑같은 일을, 똑같은 노력을 기울여 할 것입니다. 이번 실험에 대한 보수는 각 조당 5만 원입니다.”

실험 참가자들이 작업을 마치자 연구원은 참가자들을 세 부류로 나누어 각각 2만 원, 2만 5천 원, 3만 원의 보수를 차등 지급하면서, 그들이 다른 작업장에서 파트너가 받은 액수를 제외한 나머지 보수를 받은 것으로 믿게 하였다.

그 후 연구원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몇 가지 설문을 했다. ‘보수를 받고 난 후에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나누어 받은 돈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것이었다. 연구원은 설문을 하기 전에 3만 원을 받은 참가자가 가장 행복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런데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3만 원을 받은 사람은 2만 5천 원을 받은 사람보다 덜 행복해 했다. 자신이 과도하게 보상을 받아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다. 2만 원을 받은 사람도 덜 행복해 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받아야 할 만큼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① 인간은 공평한 대우를 받을 때 더 행복해 한다.
- ② 인간은 남보다 능력을 더 인정받을 때 더 행복해 한다.
- ③ 인간은 타인과 협력할 때 더 행복해 한다.
- ④ 인간은 상대를 위해 자신의 몫을 양보했을 때 더 행복해 한다.

정답 ①

실험 참가자들의 설문에서 제시된 “3만 원을 받은 사람은 2만 5천 원을 받은 사람보다 덜 행복해 했다.”는 부분에 대한 분석을 “자신이 과도하게 보상을 받아 부담을 느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이 글의 핵심 정보는 “공평한 대우”임을 알 수 있다.

- ② 능력을 더 인정받을 때 더 행복해 한다는 것은 이 글에서 추론할 수 없다.
- ③ ‘타인과의 협력’은 이 글의 핵심 정보가 아니다.
- ④ ‘상대를 위한 양보’는 이 글의 핵심 정보가 아니다.

문 5. 다음 글의 필자가 궁극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로마는 ‘마지막으로 보아야 하는 도시’라고 합니다. 장대한 로마 유적을 먼저 보고 나면 다른 관광지의 유적들이 상대적으로 왜소하게 느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로마의 자부심이 담긴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에게 제일 먼저 로마를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문명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가장 진지하게 반성할 수 있는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문명관(文明觀)이란 과거 문명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과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문명을 바라보는 시각은 그대로 새로운 문명에 대한 전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 ① 여행할 때는 로마를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좋다.
- ② 문명을 반성적으로 볼 수 있는 가치관이 필요하다.
- ③ 문화 유적에 대한 로마인의 자부심은 본받을 만하다.
- ④ 과거 문명에서 벗어나 새로운 문명을 창조해야 한다.

정답 ②

통념을 제시하고 이를 반박하여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는 이 글에서는 접속어 “그러나”의 뒷부분을 통해 궁극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전의 문장에서는 “자부심”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그러나” 이후에 로마에 가야 할 이유가 “문명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가장 진지하게 반성할 수 있는 도시”이기 때문이며, 이는 “우리의 가치관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했으므로, 이 글에서 궁극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문명을 반성적으로 볼 수 있는 가치관’임을 알 수 있다.

- ① 로마를 먼저 보라는 것은 궁극적인 주장을 하기 위한 도입에 해당한다.
- ③ 문화 유적에 대한 로마인의 자부심이 담겨 있는 말이라고 했지 본받을 만하다고는 하지 않았다.
- ④ 과거 문명을 바라보는 시각이 새로운 문명에 대한 전망으로 이어진다고 했는데, 이것이 새로운 문명을 창조하라는 의미는 아니다.

문 6.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평화로운 시대에 시인의 존재는 문화의 비싼 장식일 수 있다. 그러나 시인의 조국이 비운에 빠졌거나 통일을 잃었을 때 시인은 장식의 의미를 떠나 민족의 예언가가 될 수 있고, 민족혼을 불러일으키는 선구자적 지위에 놓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스스로 군대를 가지지 못한 채 제정 러시아의 가혹한 탄압 아래 있던 폴란드 사람들은 시인의 존재를 민족의 재생을 예언하고 굴욕스러운 현실을 탈피하도록 격려하는 예언자로 여겼다. 또한 통일된 국가를 가지지 못하고 이산되어 있던 이탈리아 사람들은 시성 단테를 유일한 ‘이탈리아’로 숭앙했고, 제1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의 잔혹한 압제 하에 있었던 벨기에 사람들은 베르렌을 조국을 상징하는 시인으로 추앙하였다.

- ① 시인의 생명(生命) ② 시인의 운명(運命)
- ③ 시인의 사명(使命) ④ 시인의 혁명(革命)

정답 ③

이 글에서 시인의 역할을 “장식”이 아닌 “민족의 예언가”와 “민족혼을 불러일으키는 선구자”로 보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시인의 사명’이다. “예언가”는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알거나 짐작하여 말해야 하는 임무를 가진 사람이며, “선구자”는 어떤 일이나 사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앞선 사람을 의미하므로 이와 의미가 잘 통하는 말은 ‘사명’이다.

- ① ‘생명’은 사람이 살아서 숨 쉬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힘을 뜻하므로, 이 글의 제목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 ② ‘운명’은 어떤 힘에 의하여 이미 정하여져 있는 목숨이나 처지를 뜻하는 말이므로, 이 글의 제목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 ④ ‘혁명’은 이전의 방식을 깨뜨리고 새로운 것을 세우는 것이므로, 이 글의 제목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문 7. ㉠~㉣을 시의 흐름에 맞게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열무 삼십 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 해는 시든 지 오래
나는 ㉡ 찬밥처럼 방에 담겨

㉢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 금 간 창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빈방에 혼자 얹드려 훌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율목.

- 기형도, 엄마 걱정 -

- ① ㉠: 해가 지고 밤이 깊어간 시간의 경과가 나타나 있다.
- ② ㉡: 관심 받지 못해 외로운 상황이 나타나 있다.
- ③ ㉢: 공부하기 싫은 어린이의 마음이 나타나 있다.
- ④ ㉣: 넉넉하지 않은 가정 형편이 나타나 있다.

정답 ③

이 시는 화자가 시장에 간 엄마를 걱정하고 기다리는 애틋하고 외로운 마음을 노래한 것으로 ㉢은 공부하기 싫은 마음이 아니라 혼자 있기에 외롭고 두려운 마음을 떨치기 위한 행동이다.

- ① ㉠: 해가 지고 밤이 되어 어두워진 상태를 표현한 것이다.
- ② ㉡: ‘찬밥’은 가난 때문에 돌볼 사람이 없던 어린 시절 화자의 서글픈 모습을 나타내는 시어이다.
- ④ ㉣: ‘금 간 창틈’을 통해 가난 때문에 금이 간 창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음을 유추할 있다.

■ 작품분석

기형도, ‘엄마 걱정’

- 성격: 회상적, 서사적, 애상적
- 표현
 - * 어린 아이의 목소리를 통하여 동시적 분위기를 형성함.
 - * 유사한 문장의 반복과 변조를 통해 리듬감 형성
 - *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엄마의 고된 삶과 나의 정서를 생생하게 표현함.
 - * 각 행을 비종결어미로 끝냄으로써, 내용상 마지막 행을 수식하게 됨.
- 주제: 시장에 간 엄마를 걱정하고 기다리는 애틋한 마음, 외롭고 두려웠던 유년에 대한 회상

문 8. 밑줄 친 단어가 상징하는 것과 가장 유사한 것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스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 천상병, 귀천(歸天) -

- ① 어머니는 눈물로 진주를 만드신다.
- ② 반짝이는 나뭇잎은 어린 아이들의 웃음 같다.
- ③ 잠을 깨고 나니 고된 인생도 한바탕 꿈처럼 여겨졌다.
- ④ 엄매인 삶보다는 구름 같은 삶이 훨씬 좋을 때가 있다.

정답 ③

‘이슬’은 소멸의 이미지로 새벽에 잠깐 동안 왔다가 사라지는 유한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화자가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해 그 어떤 미련과 집착도 가지지 않는 자유로운 달관의 삶의 자세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소재로 쓰였다. ③의 ‘꿈’도 깨면 사라지는 것처럼 인생도 덧없이 사라지는 것으로 ‘이슬’과 상징

하는 것이 유사하다.

- ① ‘눈물’은 ‘어머니의 희생’을 상징한다.
- ② ‘나뭇잎’은 ‘생명력’을 지니고 있음을 상징한다.
- ④ ‘구름’은 얽매이고 싶지 않음, 즉 ‘자유’를 상징한다.

■ 작품분석

천상병, ‘귀천(歸天)’

- 성격: 관조적, 독백적,
- 표현
 - * 3음보의 반복과 변조
 - * 담백하고 평이한 진술
 - * 맑고 투명한 이미지 구사
 - * 반복을 통한 주제의 선명성 확보
- 주제: 죽음에 대한 관조적 수용, 생의 긍정과 죽음에 대한 달관

문 9. 두 한자어의 의미 관계가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 ① 광정(匡正)－확정(廓正)
- ② 부상(扶桑)－함지(咸池)
- ③ 중상(中傷)－비방(誹謗)
- ④ 갈등(葛藤)－알력(軋轢)

정답 ②

‘부상(扶桑)’은 해가 뜨는 동쪽 바다를 의미하는 말이고, ‘함지(咸池)’는 해가 진다고 하는 서쪽의 큰 못을 의미하는 말이므로 둘의 관계는 반의 관계이다. 나머지는 모두 유의 관계에 있는 한자어 들이다.

- ① · 광정(匡正): 잘못된 것이나 부정(不正) 따위를 바로잡아 고침.
· 확정(廓正): 잘못을 바로잡음.
- ③ · 중상(中傷):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어 명예나 지위를 손상시킴.
· 비방(誹謗): 남을 비웃고 헐뜯어서 말함.
- ④ · 갈등(葛藤): 철과 등나무가 서로 얽히는 것과 같이,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 서로 적대시하거나 충돌함. 또는 그런 상태.
· 알력(軋轢): 수레바퀴가 삐걱거린다는 뜻으로, 서로 의견이 맞지 아니하여 사이가 안 좋거나 충돌하는 것을 이르는 말.

문 10. 다음 대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진행자: 오늘은 우리의 전통 선박에 대해 재미있게 설명한 책인 우리나라 배에 대해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 교수님, 우리나라 전통 선박에 담긴 선조들의 지혜를 설명한 책 내용이 참 흥미롭던데요, 구체적인 사례 하나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김 교수: 판옥선에 담긴 선조들의 지혜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혹시 판옥선에 대해 들어 보셨나요?

진행자: 자세히는 모르지만 임진왜란 때 사용된 선박이라고 들었습니다.

김 교수: 네, 판옥선은 임진왜란 때 활약한 전투함인데, 우리나라 해양 환경에 적합한 평저 구조로 만들어졌습니다.

진행자: 아, 그렇군요. 교수님, 평저 구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 교수: 네, 그건 밑 부분이 넓고 평평하게 만든 구조입니다. 그 때문에 판옥선은 수심이 얇은 바다에서는 물론, 썰물 때에도 운항이 가능했죠. 또한 방향 전환도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진행자: 결국 섬이 많고 수심이 얕으면서 조수 간만의 차가 큰 우리나라 바다 환경에 적합한 구조라는

말씀이시군요?

김 교수: 네, 그렇습니다.

진행자: 선조들의 지혜가 참 대단합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판옥선이 전투 상황에서는 얼마나 위력적이었는지 궁금한데,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① 진행자는 김 교수에게 추가 설명을 요청하고 있다.
- ② 김 교수는 진행자의 의견에 동조하며 자신의 견해를 수정하고 있다.
- ③ 김 교수는 진행자의 부탁에 따라 소개할 내용을 선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 ④ 진행자는 김 교수의 설명을 듣고 자신의 이해가 맞는지 질문을 하고 있다.

정답 ②

김 교수는 판옥선에 담긴 선조들의 지혜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을 뿐, 진행자의 의견에 따라 자신의 견해를 수정하지는 않았다.

- ① 진행자는 김 교수에게 “평저 구조가 무엇인지”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청하고 있다.
- ③ 김 교수는 진행자의 부탁에 따라 “전통 선박에 담긴 선조들의 지혜” 중 “판옥선”을 선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 ④ 진행자는 “우리나라 바다 환경에 적합한 구조라는 말씀이시군요?”에서 자신의 이해가 맞는지 질문을 하고 있다.

문 11.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 ① 그는 우리 시대의 스승이라기 보다는 자상한 아버지이다.
- ② 그는 황소 같이 일을 했다.
- ③ 하루 종일 밥은 커녕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다.
- ④ 내 모자는 그것하고 다르다.

정답 ④

- ① ‘보다’는 서로 차이가 있는 것을 비교하는 경우, 비교의 대상이 되는 말에 붙어 ‘~에 비해서’의 뜻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므로 ‘스승이라기보다는’으로 붙여 써야 한다.
- ② ‘같이’는 ‘앞말이 보이는 전형적인 어떤 특징처럼’의 뜻을 나타내는 격 조사이므로 ‘황소같이’로 붙여 써야 한다.
- ③ ‘커녕’은 어떤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물론 그보다 덜하거나 못한 것까지 부정하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므로 ‘밥은커녕’처럼 붙여 써야 한다.

문 12. 밑줄 친 어휘의 뜻풀이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해미 때문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다.
-해미: 바다 위에 낀 짙은 안개
- ② 이제는 안갯을할 때가 되었다.
-안갯을: 남에게 해를 받은 만큼 저도 그에게 해를 다시 줌
- ③ 그 울타리는 오랫동안 살피지 않아 영 불썰이 아니었다.
-불썰: 남에게 보이는 체면이나 태도
- ④ 상고대가 있는 풍경을 만났다.
-상고대: 나무나 풀에 내려 눈처럼 된 서리

정답 ②

‘남에게 해를 받은 만큼 저도 그에게 해를 다시 줌’을 뜻하는 어휘는 ‘안갯을’이다. ‘안갯을’은 ‘까마귀 새끼가 자라서 늙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일’, ‘자식이 커서 부모를 봉양하는 일’을 의미하는 어휘이다.

문 13. 밑줄 친 어휘 중 표준어가 아닌 것은?

- ① 그는 얼금얼금한 얼굴에 콧망울을 별름거리면서 웃음을 터뜨렸다.
- ② 그 사람 눈초리가 아래로 축 처진 것이 순하게 생겼어.

- ③ 무슨 일인지 꺾밭이 혹 달아오르면서 목덜미가 저린다.
 ④ 등산을 하고 났더니 장판지가 땅긴다.

정답 ①

‘꺾밭’이 아닌 ‘꺾방울’이 표준어이다. ‘꺾방울’은 코끝 양쪽으로 둥글게 방울처럼 내민 부분을 의미한다.

· 눈조리: 귀 쪽으로 가늘게 좁혀진 눈의 가장자리를 의미하는 말로 눈꼬리와 함께 복수 표준어에 해당한다.

· 꺾밭: 꺾바퀴의 아래쪽에 붙어 있는 살을 의미하는 말로 꺾불과 함께 복수 표준어에 해당한다.

· 장판지: 종아리의 살이 불룩한 부분을 의미하는 말이다.

문 14.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거사는 이렇게 대답했다.

“얼굴이 잘생기고 예쁜 사람은 맑고 아른아른한 거울을 좋아하겠지만, 얼굴이 못생겨서 추한 사람은 오히려 맑은 거울을 싫어할 것입니다. 그러나 잘생긴 사람은 적고 못생긴 사람은 많기 때문에, 만일 맑은 거울 속에 비친 추한 얼굴을 보기 싫어할 것인즉 흐려진 그대로 두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깨쳐 버릴 바에야 먼지에 흐려진 그대로 두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먼지로 흐리게 된 것은 겉뿐이지 거울의 맑은 바탕은 속에 그냥 남아 있는 것입니다. 만약 잘생기고 예쁜 사람을 만난 뒤에 닦고 갈아도 늦지 않습니다. 아! 옛날에 거울을 보는 사람들은 그 맑은 것을 취하기 위함이었지만, 내가 거울을 보는 것은 오히려 흐린 것을 취하는 것인데, 그대는 이를 어찌 이상스럽게 생각합니까?” 하니 나그네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 이규보, 경설 중에서 -

- ① 잘생긴 사람이 적고 못생긴 사람이 많다는 말에서 거사의 현실인식을 알 수 있다.
 ② 용모에 대한 거사의 논의는 도덕성, 지혜, 안목 등을 비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잘생기고 예쁜 사람을 만난 후 거울을 닦겠다는 말에서 거사가 지닌 처세관을 엿볼 수 있다.
 ④ 이상주의적이고 결백한 자세로 현실에 맞서고자 하는 거사의 높은 의지가 드러나 있다.

정답 ④

거울의 본성은 깨끗하고 맑은 것이나 먼지가 끼면 흐려진다는 현상적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거울의 본성이 그러하듯이 인간에 있어서도 본성 자체가 흐린 사람이 있겠는가 하는 통찰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거사가 흐린 거울을 닦한다는 의미는 세상에는 오히려 흠과 티끌이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이 상례인데 지나치게 결백하고 청명한 태도(맑은 거울을 닦는 것)만으로 일관하기 어려우므로 혼탁한 현실(흐린 거울을 닦함)을 어느 정도 수용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거사가 이상주의적이고 결백한 자세로 현실에 맞서고자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다.

■ 작품분석

이규보, 경설(鏡說)

- 갈래: 고전 수필, 한문 수필, 설(說)
- 성격: 처세훈적(處世訓的), 풍자적, 교훈적
- 표현: 대화체, 비유적 방법의 사용, 간결하고 소박한 표현
- 주제: 바람직한 처세훈적 의식과 현실에 대한 풍자, 사물과 현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
- 출전: <동국이상국집>
- 특징

- ① 철학적 사색이 담긴 글
 ② 처세의 방편을 알려주는 글
 ③ 대화를 통해 주제를 암시
 ④ 사물(거울)을 통해 삶의 새로운 이치를 깨닫게 해주는 글

문 15. ㉠~㉣을 고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모든 계층의 사람이 똑같이 많이 벌고 잘살기를 바랄 수는 없다. 어느 정도의 소득 격차는 경쟁을 유발하는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 따라서 우리와 같은 양극화 현상의 심화 추세를 그대로 방치한 채 자연 치유되도록 기다릴 수만은 없다. 그동안 단편적인 대책이 나오기는 했으나 ㉡ 떡 먹은 입 쓸어 치듯 개선은 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어 가고 있음이 역력히 드러나고 있다.

과거의 실패를 거울삼아 저소득층 소득 향상을 통한 근본적인 빈부 격차 개선책을 제시하여 빈자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야 한다. 그렇다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을 욕하거나 ㉢ 경원되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기업 투자와 내수 경기를 일으키는 일이 긴요하다. 그래야 일자리가 생기고 서민 소득도 늘어나게 된다. ㉣ 또한 자본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고소득층의 해외 소비 활동도 촉진해야 한다. 그리고 세계 개혁을 통한 재분배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세제만큼 유효한 재분배 정책 수단도 없다. 동시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각 부문의 양극화 개선을 위해 경제 체질과 구조 개선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

- ① ㉠-문맥에 맞도록 ‘그러나’로 수정한다.
 ② ㉡-의미가 통하도록 ‘아랫돌 빼서 윗돌 괴듯’으로 수정한다.
 ③ ㉢-어법에 맞도록 ‘경원을 사서는’으로 수정한다.
 ④ ㉣-문단의 통일성에 어긋나므로 삭제한다.

정답 ③

㉢의 ‘경원’은 문맥상 멀리하다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경원되어서는”을 “경원을 사서는”으로 고치면 문장이 오히려 어색해진다. ㉢은 ‘겉으로는 공경하는 체하면서 실제로는 꺼리어 멀리함’의 뜻을 가진 ‘경원하다’를 사용하여 ‘경원해서는’으로 고쳐야 어법상 바른 문장이 된다.

- ① ㉠의 앞에서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일어나는 소득 격차를 긍정적으로 보았고, ㉠의 뒤에서는 이러한 양극화 현상을 방지할 수 없다고 하여 소득 격차를 부정적으로 보았으므로, ㉠에는 대조적 의미의 접속어 ‘그러나’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② ㉡“떡 먹은 입 쓸어 치듯”은 떡을 먹고도 안 먹은 듯 입을 쓸어 내며 시치미를 뚝 떤다는 말이므로 ㉡의 앞부분에 제시된 “단편적인 대책”을 고려했을 때, 문맥상 적절하지 않다. “단편적인 대책”과 관련된 속담으로 ㉡을 ‘아랫돌 빼서 윗돌 괴듯’으로 수정하는 것은 적절하다.
 ④ ㉣의 “고소득층의 해외 소비 활동 촉진”은 이 글의 논지와 어긋나므로 삭제한다는 것은 적절한 수정 방안이다.

문 16. 안긴문장이 주성분으로 쓰이지 않은 것은?

- ① 그 학교는 교정이 넓다.
 ② 농부들은 비가 오기를 학수고대했다.
 ③ 아이들이 놀다 간 자리는 항상 어지럽다.
 ④ 대화가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몰랐다.

정답 ③

문장에서 ‘주성분’으로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를 들 수 있고, ‘부속성분’으로 ‘관형어, 부사어’를 들 수 있다. ③의 ‘아이들이 놀다 간’은 관형절이다. 이 관형절이 뒤의 ‘자리는’을 수식하는 관형어 역할을 하므로 주성분이 아니라 부속성분에 해당한다.

- ①: 서술절 ‘교정이 넓다’가 주성분인 서술어로 쓰인 안긴문장이다.
 ②: 명사절 ‘비가 오기’가 주성분인 목적어로 쓰인 안긴문장이다.
 ④: 명사절 ‘대화가 어디로 튈지(를)’이 주성분인 목적어로 쓰인 안긴문장이다. 어미 ‘-ㄴ/ㄹ지’는 명사절 형성 표지인 ‘-(으)ㄴ’, ‘-기’와 마찬가지로 문장 내에서 주어, 목적어 등의 기능을 할 수 있다.

문 17. ㉠~㉡의 밑줄 친 어휘의 한자가 옳지 않은 것은?

- 그는 적의 ㉠ 사주를 받아 내부 기밀을 엿맸다.
○ 남의 일에 지나친 ㉡ 간섭을 하지 않기 바랍니다.
○ 그 선박은 ㉢ 결함을 지닌 채로 출항을 강행하였다.
○ 비리 ㉣ 척결이 그가 내세운 가장 중요한 목표였다.

- ① ㉠-使噓 ② ㉡-間涉
③ ㉢-缺陷 ④ ㉣-剔抉

정답 ②

‘간섭’은 ‘干涉(干 막을 간/涉 건널 섭)’으로 쓴다. 나머지는 모두 옳게 쓰였다.
㉠ 使噓(사주, 使 시킬 사/噓 부추길 주): 남을 부추겨 좋지 않은 일을 시킴.
㉢ 缺陷(결함, 缺 이지러질 결/陷 빠질 함): 부족하거나 완전하지 못하여 흠이 되는 부분.
㉣ 剔抉(척결, 剔 바를 척/抉 도려낼 결): 「1」 살을 도려내고 뼈를 발라냄. 「2」 나쁜 부분이나 요소들을 깨끗이 없애 버림

문 18. 다음 글이 독자에게 웃음을 유발하는 이유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개의 몸에 기생하는 진드기가 있다. 미친 듯이 제 몸을 긁어대는 개를 붙잡아서 털 속을 헤쳐 보라. 진드기는 머리를 개의 연한 살에 박고 피를 빨아 먹고 산다. 머리와 가슴이 붙어 있는데 어디까지가 배인지 꼬리인지도 분명치 않다. 수컷의 몸길이는 2.5밀리미터, 암컷은 7.5밀리미터쯤으로 핀셋으로 살살 집어내지 않으면 몸이 끊어져 버린다. 한번 박은 진드기의 머리는 돌아 나올 줄 모른다. 죽어도 안으로 파고들다가 죽는다. 나는 그 광경을 ‘몰두(沒頭)’라고 부르려 한다.

- 성석제, 몰두 중에서 -

- ① 소리는 같지만 뜻은 전혀 다른 두 단어를 의도적으로 혼란스럽게 섞어 사용해서
②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사건 대신 아주 엉뚱한 사건을 전개해서
③ 묘사하는 대상의 우스꽝스러운 생태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한 채 객관적으로 전달해서
④ 어떤 단어를 보통 쓰이는 의미 대신 글자 그대로의 의미로 짐짓 받아들여서

정답 ④

‘몰두(沒頭)’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에 온 정신을 다 기울여 열중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글자 하나하나를 새겨 보면 ‘沒(몰)’에는 ‘빠지다’의 뜻이, ‘頭(두)’에는 ‘머리’의 뜻이 들어있다. 머리를 파고들다가 죽는 진드기의 모습을 ‘몰두’라고 표현한 것은, 일반적으로 쓰이는 ‘열중하다’는 의미 대신 ‘글자’ 그대로의 의미를 받아들여 표현한 것이다.
① 소리는 같지만 뜻이 다른 동음이의어를 사용한 것은 아니다.
② 예상되는 사건 대신 엉뚱한 사건을 전개한 것은 아니다.
③ 묘사하는 대상의 모습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것은 아니다.

문 19. 다음 글의 서술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들은 여전히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
“그래 촌에 들어가면 위험하진 않은가요?”
조선에 처음 간다는 시골자가 또다시 입을 벌렸다.
“필요, 어텔 가든지 조금도 염려 없쎄다. 생변이라 하여도 요보는 온순한 데다가, 가는 곳마다 순사요 헌병인데 손 하나 꿈쩍할 수 있나요. 그걸 보면 데라우치 상이 참 손아귀 힘도 세지만 인물은 인물이야!”
매우 감격한 모양이다.
“그래 촌에 들어가서 할 게 뭐예요?”

“할 것이야 많지요. 어텔 가기로 굶어 죽을 염려는 없지만, 요새 돈 몰 것이 톱 하나 있지요. 자본 없이 힘 안 들고, 하하하.”

표독한 위인이 충동이는 수작이다.

...(중략)...

나는 여기까지 듣고 깜짝 놀랐다. 그 불쌍한 조선 노동자들이 속아서 지상의 지옥 같은 일본 각지의 공장과 광산으로 몸이 팔리어 가는 것이 모두 이런 도적놈 같은 험잡 부랑배의 술중(術中)에 빠져서 속아 넘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나는 다시 한 번 그자의 상판대기를 치어다보지 않을 수 없었다.

- 염상섭, 만세전 중에서 -

- ① 작품 밖의 전지적 서술자가 일어난 사건의 전말을 전달하고 있다.
②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다른 인물을 관찰하며 평가하고 있다.
③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가 관찰자가 되어 등장인물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다.
④ 작품 속의 서술자가 작품 밖의 서술자와 교차하며 사건을 입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정답 ②

이 글은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 ‘나’의 관점으로 다른 인물들의 모습을 관찰하고 평가하는 일인칭 주인공 시점의 소설이다.

- ① 작품 밖의 전지적 서술자가 일어난 사건의 전말을 전달하고 있는 것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③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가 관찰자가 되어 등장인물의 행동을 묘사하는 것은 작가 관찰자 시점이다.
④ 작품 속에 서술자가 있는 것은 일인칭 시점에 관한 진술이고, 작품 밖에 서술자가 있는 것은 삼인칭 시점에 관한 설명이다.

■ 작품분석

염상섭, ‘만세전’

- 갈래: 중편소설, 장회소설(전9장) 사실주의 소설
- 배경
 - * 시간적 → 3.1만세운동이 일어나기 직전인 1918년 겨울
 - * 공간적 → 동경, 고베, 교토, 시모노세키, 김천, 서울 등(당대 현실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타락한 공간이며, 자아와 항상 대결하는 화해가 불가능한 공간임.)
 - * 사상적 → 봉건 인습의 폐해와 제국주의에 대한 민족주의의 노정
- 시점 : 1인칭 주인공 시점
- 표현상 특징
 - * 자조적 어조
 - * 사실적이고 호흡이 긴 문체
 - * 원점 회귀 구조(동경 → 서울 → 동경)
 - * 당대 지식인들의 나약하고 무기력한 의식구조를 드러냄.
 - * 전반적으로 사건 전개보다는 상황 제시에 중점을 둠.
- 주제: 일제 강점기 지식인의 고뇌

문 20. 다음 글을 근거로 할 때, <보기>의 대화에서 ㉠의 대답이 갖는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라이스(Grice)는 원활한 대화 진행을 위한 요건으로 네 가지의 ‘협력의 원리’를 제시한 바 있다. 첫째, 주고받는 대화의 목적에 필요한 만큼만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지 말라는 양의 격률이다. 둘째, 진실한 정보만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증거가 불충한 것은 말하지 말라는 질의 격률이다. 셋째, 해당 대화 맥락과 관련되는 말을 하라는 관련성의 격률이다. 넷째, 모호하거나 중의적인 표현을 피하고 간결하고 조리

있게 말하라는 태도의 격률이다. 그러나 모종의 효과를 위해 이 네 가지의 격률을 위배하는 일은 일상 대화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데, 일반적으로 언중들은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뿐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협력의 원리를 지키는 것이 예의에 어긋난 경우도 많다.

<보 기>

대화(1) ㉠: 체중이 얼마나 되니?

㉡: 55 kg인데 키에 비해 가벼운 편입니다.

대화(2) ㉠: 얼마 전 시민 운동회가 있었다며?

㉡: 응. 백 미터 달리기에서 비행기보다 빠른 사람을 봤어.

대화(3) ㉠: 너 몇 살이니?

㉡: 형이 열일곱 살이고, 저는 열다섯 살이지요.

대화(4) ㉠: 점심은 뭐 먹을래?

㉡: 생각해 보고 마음 내키는 대로요.

- ① 대화(1): 관련성의 격률을 위배하였다.
- ② 대화(2): 질의 격률을 위배하였다.
- ③ 대화(3): 양의 격률을 위배하였다.
- ④ 대화(4): 태도의 격률을 위배하였다.

■ 정답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②	①	④	①	②	③	③	③	②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②	①	④	③	③	②	④	②	①

정답 ①

‘관련성의 격률’은 해당 대화 맥락과 관련되는 말을 하라는 것이다. 대화 (1)에서 ㉠은 ‘체중’에 대한 질문을 하였고, ㉡은 ‘55kg’이라고 대답하였으므로 ‘관련성의 격률’을 위배하지는 않았다.

② “비행기보다 빠른 사람”은 진실한 정보만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증거가 불충한 것은 말하지 말라는 질의 격률을 위배한 것이다.

③ “형이 열일곱 살”이라는 것은 필요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지 말라는 양의 격률을 위배한 것이다.

④ “생각해 보고 마음 내키는 대로”는 간결하고 조리 있게 말하라는 태도의 격률을 위배한 것이다.